

〈약 145km〉

서울~대전 거리 컨테이너 한번에 삼성중, 세계최대 컨선 기록갱신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
컨테이너 2만3756개 한번에 운반

서울에서 대전까지(약 145km) 한 줄로 늘어난 컨테이너 모두를 한번에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탄생했다. 국내 조선사인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건조 기록을 갱신한 것.

삼성중공업은 8일 스위스 해운선사인 MSC로부터 2017년 9월 수주한 2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 건조를 계약일보다 3주가량 일찍 완성, 지난 6일 성공적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MSC GULSUN (굴슨)'으로 이름 지어진 이 선박은 그간 만들어졌던 컨테이너선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61.5m, 높이 33.2m로 20ft(피트) 컨테이너 2만 3756개를 한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현재까지 전 세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성공한 세계 최대 크기(23,000TEU급)의 컨테이너선.

계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이다. 실제 20ft 컨테이너 1개의 길이는 약 6.1m로 2만756개를 나란히 세울 경우 그 길이가 무려 145km에 달한다.

또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 '에스베셀(SVESSEL)'이 탑재돼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커버 설치는 물론 향후 LNG 연료 추진선박으로도 쉽게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LNG-ready)한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라는 게 삼성중공업의 설명이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건조, 인도한 삼성중공업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앞장서 왔다. 5000TEU가 주종을 이루던 1990년에 세계 최초로 6200TEU급을 개발했다. 2000년에는 7700TEU, 8100TEU를 연이어 개발, 더 많은 컨테이너를 더 빠른 속도로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개발해왔다.

이후 2004년 1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하며 5년 만에 적재량을 2배로 늘렸다. 2015년에는 일본 MOL사로부터 2만1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하며 세계 최초로 2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열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인도로 다시 한번 이 분야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X-선으로 미세먼지 해결 '어썸레이' 카카오벤처스 등서 22억 투자유치

X-선 발생장치로 오염물질 정화
지하철역에 자체개발장치 공급
내년 해외진출, 생산공장 설립

차세대 X-선 발생장치 제조 기업 어썸레이가 카카오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 등으로부터 2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7월 설립한 어썸레이는 시드라운드에서 7억원을, 프리 시리즈 A라운드에서 15억원을 연이어 투자 유치했다. 첫 라운드는 카카오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가 참여했고, 두 번째 라운드는 기존 두 곳의 투자사와 디캡프, 베이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어썸레이는 초소형 X-선 발생장치를 개발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X-선은 전자를 물체에 충돌시켜 발생된 전자기파를 의미하는데, 이 X-선이 공기 중 미세한 오염물질을 이온화해 빠른 속도로 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어썸레이는 기존 X-선 장치에 들어가는 필라멘트가 아닌, 탄소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섬유를 사용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첫줄 오른쪽)와 어썸레이 팀원.

/카카오벤처스

한다. 이를 통해 유해물질인 오존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맞춤형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

연내 어썸레이는 국내 지하철 역사에 자체 개발 장치를 공급하고, 2020년에는 해외 진출과 함께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는 "어썸레이의 X-선 발생장치는 공기 정화뿐 아니라 의료, 보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며 "해당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비

전으로 더욱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를 이끈 카카오벤처스의 김기준 부사장은 "어썸레이는 나노 소재를 전공한 다섯 명의 서울대학교 박사과 20년 이상 X-선 장비 제조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이들의 검증된 기술력과 빠르게 양산용 시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사업 역량을 높게 평가해 후속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T '바로 요금제' 이용고객에 경품 제공

SK텔레콤은 '바로' (baro)의 '아시아 최고 모바일 기술 혁신상' 수상 기념으로 내달까지 바로 요금제를 추천 받거나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바른 로밍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MWC 19 상하이 '아시아 모

바일 어워드'에서 '최고 모바일 기술 혁신상'을 수상한 바로는 전세계 170개국에서 무료로 고품질의 음성 로밍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론칭 반년 만에 누적 3800만콜, 누적 통화 80만 시간, 총 이용자수 220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수상을 기념해

/김나인 기자

'U+프로야구' 국내 브랜드상 2관왕

LGU+, 국가서비스 대상 등 수상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가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국가서비스대상' 스포츠콘텐츠부문과 산업정책연구원·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공동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스포츠콘텐츠 부문에 선정되며 국내 브랜드상을 연달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5G 특화 기능을 추가하며 새롭게 단장한 U+프로야구는 6월 26일 기준 일별 누적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선보인 U+프로야구는 '포지션별 영상', '특점장면 다시보기', '상대전적 비교', 'TV로 크게보기' 등 4대 핵심기능으로 전국 야구장 경기를 생중계해

서비스 오픈 이틀 만에 이용자 10만명, 한해 시준 누적 이용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전체를 초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해 원하는 위치를 확대해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경기장 줌인' ▲추가 60대의 초고화질 영상 촬영 카메라를 동원해 홈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다양한 각도로 포착하는 '홈밀착영상'이다. 또 지난 2일부터는 프로야구 시즌 종료 시점까지 경기 중 실시간 투구 및 타구·주루·수비 궤적 등 그래픽과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하는 'AR입체중계' 서비스도 도입했다.

U+프로야구는 통신사 관계 없이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B tv '보이는 팟캐스트' 출연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B, 금융·투자 채널 '이리온스튜디오'

'보이는 팟캐스트'서 단독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손잡고 금융·투자정보 채널인 '이리온스튜디오'를 B tv '보이는 팟캐스트' 서비스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리온스튜디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금융·투자 정보 관련 콘텐츠를 기획, 제작, 편집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서비스하고 있는 채널이다. 이리온스튜디오 콘텐츠는 현재 팟캐스트 경제 카테고리 내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1만5000여 명의 고정팬이 시청한다.

한편, B tv는 지난 1월 유튜브 및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IPTV에서 2주 먼저 제공하는 '보이는 팟

캐스트'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현재 보이는 팟캐스트를 통해 임신·출산·육아 전문 방송인 '맘맘맘'을 비롯해 '요리하는 시간', 인기 MCN 채널인 '보이스 빌리지', '걸스 빌리지', '스튜디오 V', 심리상담을 다루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야구마니아를 위한 '프로동네야구'와 미니어처 마니아를 위한 '쫄만한 마을'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B tv '보이는 팟캐스트'의 이용요금은 월 33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해당 콘텐츠를 광고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B tv '다큐·라이프' 보이는 팟캐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B tv 고객 전원에게 '보이는 팟캐스트' 월정액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김나인 기자

동양철관, 천안 인덕선설비 이달 본격가동

KBI그룹의 대구경 강관 종합 전문 기업 동양철관이 올해 상반기 인덕선 열처리 설비를 천안공장에 구축했다. 이는 국내 최대 구경 강관용 설비로 이번 달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식인 열처리 로(furnace)를 이용한 대구경 강관의 노멀라이징(약 900℃ 부근) 열처리는 고정된 상태의 방식으로 제품 형상 변형이 문제였으나 이번 동양철관이 특허를 받은 열처리 공법은 강관을 회전, 이동시키며 열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문제를 해결했다.



동양철관 천안공장 전경.

이로써 회사는 최대 1000℃의 온도에서 대구경(400~2500mm)까지 열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고품질 제품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